

특례보증금자리론 출시... '영끌족' 숨통 트이나

소득 요건 없이 연 4%대 고정금리...대출 한도 5억으로 확대 신혼 가구 등 우대 조건 충족 3%대 중후반...30일부터 신청

“대출 갈아타야겠어요.”
 지난해 10월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유모(여·38)씨는 ‘특례보증금자리론’이 나온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유씨는 주택 마련 당시 시중은행으로부터 금리 5.15%에 총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매달 원금과 함께 145만원 상당을 꼬박꼬박 갚고 있다고 한다.
 그는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대출상환 부담이 컸다”며 “특례보증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치솟는 대출금리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 특례보증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

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보증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증금자리론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 시중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영끌족’을 비롯한 실수요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여기에 기존 보증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도 파격적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었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증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증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증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킴’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 금리우대가 별도 적용될 수 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가는 구조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증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증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이번 상품이 금리 상승기 실수요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년간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59.53(+8.22)
↑ 코스닥	709.77(+13.72)
↓ 금리(국고채 3년)	3.472(-0.084)
↑ 환율(USD)	1246.20(+1.50)

연말정산 더 간소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14일까지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지 않는다.
 간소화자료를 직접 보고 싶은 근로자는 예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이외에 기부금·월세 납부 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의료용구 비용, 학업인정(특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등은 기관이 국세청에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15일부터 간소화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어려운 일은 ‘젊은’ 보른건설에 맡겨 주세요”

비즈 & 피플 <1> 김민준 보른건설 대표



김민준 보른건설 대표

중소기업은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시장의 비중도 83%에 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불안하기만 하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힘겨웠던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 광주·전남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조명한다.

건축·토목·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30대 사장’ 성실함 무장 5년 차 신생 업체 매출 상승 곡선...지역사회 환원도 앞장

“젊은 대표의 감정을 살려 작지만 강하고 믿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김민준(34·사진) 대표는 지난 2019년 ㈜보른건설을 설립하고 지역 건설업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젊은 기업인이다.
 창립 5주년을 앞둔 보른건설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와 지반조성 포장공사,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다. 건축·토목·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건설업=고된 일’이라는 선입견에 청년이 속속

이탈하는 업계 상황에서 ‘30대’ 김 대표의 행보는 주목할만하다.
 김 대표가 건설업계에 뛰어들 건 부친의 영향이 컸다. 건축업계에 몸담았던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건축 공부에 흥미가 붙어 구조공학으로 석사 학위도 취득했다.
 이후 수도권 토목엔지니어링 기업에서 실력을 쌓아가던 중 창업에 눈을 돌렸다. 자신만의 기업 경영을 펼치며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을 주려는

다 현장에 더 일찍 도착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업계에서 신뢰를 쌓아갔다. 다른 업체가 꺼리는 현장이라면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기도 했다.
 “젊은 대표의 장점이라 할까요. 저는 대표라고 해서 그냥 앉아 자리만 지키지 않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을 지키는 모습을 주변에서 좋게 봐주는 것 같아요.”
 이 같은 노력 덕분에 5년 차 신생 업체임에도 해마다 매출 상승곡선을 그리며 순항하고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창업을 결심한 김 대표는 지역사회 환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회사가 있는 광주시 북구 건국동을 기반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의용소방대원 활동도 수년째 이어가고 있다. 연말연시 취약계층을 향한 나눔도 잊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보른건설이 가진 건설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지역에 수많은 건설회사가 있지만 ‘어려운 일은 보른건설에 맡기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길 때까지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민준 기자 mskim@kwangju.co.kr

중기 5곳 중 2곳 “설 상여금 지급” 평균 40만원

‘자금난 호소’ 작년보다 11%p 늘어...원자재값 압박 시달려

중소기업 5곳 중 2곳 이상은 지난해 설 대비 최근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5곳 중 2곳 이상이 설 상여금 지급할 계획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0만원 정도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소기업 8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 조사’ 결과 지난해 설 대비 최근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36.6%

에 달했다.
 전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34.9%, 원활하다는 응답은 28.5%였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10.6%포인트 상승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 응답)은 판매·매출 부진(7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66.9%), 인건비 상승(34.5%), 납품 대금

단가 동결·인하(7.2%) 등 순이었다.
 설 상여금(현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지급 예정이라는 응답이 44.3%를 차지했고 미지급이 17.0%였다. 별도 상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4.0%였고 경영 곤란으로 미지급이 4.8%였다.
 정액 지급 때 금액은 1인당 평균 40만원으로 지난해 설(4만7000원) 대비 4만7000원 줄었다. 정률 지급 시에는 기본급의 61.7%를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 휴무 계획에 대해 96.1%가 설 연휴(21-24일)에만 휴무할 것이라고 답했고 평균 휴무일은 2.3일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청년 고용 한파

20대 취업자 전년비 1000명 줄어...4년 연속 ‘마이너스’

지난해 광주 4년제 대학 졸업 취업자가 1만 3000명 줄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광주 20대 취업자 수는 4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광주 75만명·전남 101만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000명·2만6000명 증가했다.
 광주는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부터 2년 연속 이어진 취업자 감소세를 딛고 지난해 반등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적었다. 전남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1년(1만 1000명)의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광주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00명 줄면서 2019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년보다 20대 취업자가 줄어든 시도는 대구와 서울, 부산, 경남, 광주 등 5곳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4년제 대학 졸업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1만 3000명 줄며 청년 고용 한파를 반영했다. 4년제 취업자 수는 지난해(1만1000명)와 2021년(-2만1000명) 줄면서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취업자가 줄어든 광역자치단체의 오명을 안았다.
 2년 연속 20대 취업자가 줄던 전남지역은 전년보다 3000명 늘어 반등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6000명·4000명 등 1만명 줄며 2016년(-9000명)부터 7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30대 취업자도 지난해 광주 3000명·전남 4000명 감소했다. 이외 광주·전남 10대 취업자는 4000명 늘고, 50대는 1만3000명, 60세 이상은 3만명 증가했다. 광주·전남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만1000명 늘었는데, 증가 폭 대다수가 60세 이상이 차지한 것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생명 전남총국 새해 사업 추진 결의대회. NH농협생명 전남총국(총국장 김현주)은 11일 무안군 삼함읍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전남지역 농·축협 임직원 300여 명과 ‘2023년 생명보험 새해 사업 추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서창농협, 상호금융 예수금 8000억 달성탑 수상

농협 광주지역본부 서창농협이 상호금융 예수금 8000억원을 달성해 농협중앙회로부터 기념탑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고성신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날 김명열 서창농협 조합장에게 ‘상호금융 예수금 8000억원 달성탑’을 전했다.
 상호금융 예수금 달성을 위해 노력한 서창농협 지점장 9명도 수상을 기념했다.
 ‘상호금융 예수금 달성탑’은 농·축협의 건전

경영과 내실 있는 사업 성장을 유도하고자 농협 중앙회가 시행하고 있는 시상 제도이다.
 김 조합장은 “상호금융 예수금 8000억원 달성은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금융 환경 속에서도 서창농협을 신뢰해준 조합원과 고객을 덕분”이라며 “농협의 기본 이념인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서창농협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